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2권 1호 (2022. 3), pp.41-56
10.23045/kjpd.2022.2.1.041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 <보훈외교>의 부상과 그 발전 방향 모색

최정식*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 초 록 〉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정책이 새로운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해외 유엔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국제보훈정책을 〈보훈외교〉라고 하고 1975년부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보훈외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보훈 정책인 〈보훈외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정책으로 전쟁에서 자국에 병력을 파병하거나 지원을 했던 동맹국의 참전용사들을 직접 예우하는 보훈외교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는 없었다. 〈보훈외교〉는 새로운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이 〈보훈외교〉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다. 그 이유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UN 창설 후 유일하게 22개 연합군 형태로 참전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기 때문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외교〉를 펼칠 수 잇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인 '부산UN기념공원'이라는 국제 추모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보훈외교〉가 새로운 공공외교 수단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전 세계 '공공외교' 경쟁에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소프트파워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22개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해 '무형·유형'의 가치가 생산·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훈외교〉활동을 통해 감동을 받은 많은 유엔참전용사들의 사후(死後)안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완충지대 조성이라는 안보적 가치까지도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훈외교〉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참전 1세대를 넘어 2,3세대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유엔참전국 내부의 참전세대를 계기로 강력한 친한(親韓)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6.25전쟁은 우리에게 '잊고 싶은 역사' 였지만 〈보훈외교〉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역사'로 바뀌고 있다. 6.25전쟁을 '기회의 역사'로 재조명하고 그 기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인 〈보훈외교〉인 것이다. 이러한 〈보훈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전략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할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보훈외교, 국제보훈, 보훈정책, 6.25전쟁 유엔참전국, 유엔참전용사

* 교신저자, tonychoi@hanamail.net

1. 서론: 새로운 공공외교로서 <보훈외교>의 부상

2020년 5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방역마스크 등 방역물품들이 부족할 때,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했던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방역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참전국 국민들로부터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라는 호평을 받게 되었다.[1)]

전 세계가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지만, 자국을 위해 참전했던 나라와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예우를 다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참전용사와 참전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이러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외교활동 이외에 개발도상국 등에 교육, 기술 및 무상 원조 지원을 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까지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해오고 있다(외교부, 2017).

통상적인 공공외교는 정부 공식 외교 활동 이외의 활동을 지칭해왔지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정책이 새로운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는 해외 유엔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이러한 형태의 보훈정책을 <보훈외교>라고 지칭하고 1975년부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부상되고 있는 <보훈외교>의 가치와 그 중요성 그리고 새롭게 부상되는 이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2. 국제보훈 활동으로서 <보훈외교>란 무엇인가?

1) 6.26전쟁 중 참전한 22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활동

국가보훈처의 <보훈외교> 정책은 1975년부터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를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재방한(Revisit)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 유엔참전용사 감사·위로 사업, 미래세대와의 공감 및 교육사업, 학술교류 및 출판사업, 유엔참전용사 참전 현충시설 건립, 참전국 정부간 협력 강화 사업들까지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보훈 정책인 <보훈외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정책으로 전쟁으로 자국에 병력을 파병하거나 지원을 했던 동맹국의 참전용사들을 직접 예우하는 보훈외교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는 없었다.

1)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15514293

그동안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훈은 국가보훈의 대외정책적인 측면에서 <보훈외교>로 이해되며,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비추어 효과적인 새로운 형태의 외교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오일환, 2015).

최근 국제적인 보훈정책 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서 점차 국제보훈의 개념, 국제보훈 사업의 범위와 대상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미경, 2015). 특히 <보훈외교> 사업 대상국의 외연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여기에는 비군사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해준 국가들까지 보훈외교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보훈정책 활동인 <보훈외교>의 개념은 '보훈의 국제화'의 의미로서, 협의와 광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한국정책학회, 2020).

협의의 <보훈외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후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광의의 <보훈외교>는 '보훈을 매개로 참전국과 그 국민들과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활동을 통해 협력적 외교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외교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한미공조의 유지와 강화는 국제보훈활동, <보훈외교>를 통한 공공외교 방향에서 상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즉 한미공조 유지 및 주변국과의 공조 노력의 매개체로서 보훈의 역할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한 공공외교의 추진 방향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2) 대한민국 <보훈외교> 정책의 역사

1975년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보훈외교>정책은 2020년 3월 24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훈외교>정책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1975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부터 2020년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훈외교>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확보, 타 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의 <보훈외교>활동에 법률적 근거가 생기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 및 관계부처, 참전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유엔참전용사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될 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중요한 입법이라고 평가되었다.[2)]

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15

<표 1> 대한민국 <보훈외교> 정책 약사

연도	사업
1975~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최초로 실시
1980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재향군인회 단독 사업으로 전환
1993~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국가보훈처로 업무 이관
1995~	한국전 참전 행사에 국내 참전유공자 및 정부대표단 파견
2003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처음으로 초청
2009	참전용사 후손(120명) 초청, 청소년 평화캠프 행사 개최
2011~	유엔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미국)으로 유엔참전 기록 수집, 기록 시작
2013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학습장려금 지원 시작
2020~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국외장학금 예산 신설

※ 출처: 연세대 인간평화와치유연구센터 (2021)

3. <보훈외교> 정책 주요 추진 현황

국가보훈처의 <보훈외교> 정책은 크게 1) 유엔참전용사 감사·위로 사업, 2) 미래세대와의 공감 및 교육 사업, 3) 학술교류 및 출판 사업, 4) 유엔참전용사 참전 현충시설 건립 지원 사업 4) 참전국 정부 간 협력 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 감사·위로 사업

유엔참전용사 감사와 위로 사업은 유엔참전용사 국내 재방한 초청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감사·위로 행사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1) 유엔참전용사 국내 재방한 초청행사

이 사업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경의를 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1975년부터 시작되었고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6년 국가보훈처 직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2019년까지 3만 3천 3백여명의 유엔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

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훈외교>사업이다.

(2)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 감사행사

현지 위로 및 감사 사업은 고령이나 건강상 대한민국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엔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참전국에서 실시하는 6.25전쟁 관련 각종 기념식에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초청해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희생에 감사하는 보훈 사업이다.

2010년부터 22개국 현지 공관을 통해 28만 여명이 참석,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를 개최하고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해오고 있다. 특히, 유엔참전용사들이 고령화되면서 한국으로의 재방한 보다는 현지에서 위로 감사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서 한국 정부 이외에 현재 국내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 미래세대와의 공감 및 교육 사업

미래세대와의 공감 및 교육 사업은 유엔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생존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사업으로 주로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1) 유엔참전용사 후손 청소년 평화캠프(Youth Peace Camp)

유엔참전용사들의 후손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참전용사의 후손 세대와 긴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에티오피아와 터키의 참전용사 후손 초청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들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1,540명, 국내에서 520명 총 2,060명이 참여하였다.

(2) 유엔참전용사 현지 후손과 함께하는 비전캠프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유엔참전국가의 대학생이 참전국 현지에 모여 참전부대를 방문하고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유엔참전용사에게 위로연 및 감사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9년 태국, 2021년 벨기에 현지에서 진행하였고 그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3) 유엔참전국가의 참전용사 경제적 지원 및 후손 장학 사업

유엔참전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엔참전국 중에서 저소득 국가의 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유엔참전국가에서 장학지원 대

상자 후손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엔참전국 후손 장학 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엔참전국가 현지에서 소득이 낮은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영예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후손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은 총 850명이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135명에게는 월 5만원의 영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전용사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유학 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국가보훈처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국가에서 후손을 선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학술 교류 및 출판 사업

(1) 유엔참전국가 보훈정책 전문가 초청 국제보훈 워크숍 사업

2005년부터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국을 중심으로 보훈정책 관련 공무원 또는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의 전문가를 초청, 각 국의 보훈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향, 유엔참전국 기념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기념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 사이의 유대 협력, 미래세대 계승 방안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국제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2)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사 및 교육자료(교재) 발간 지원 사업

유엔참전국의 6.25전쟁 참전사 발간에 필요한 자료와 예산을 지원하며, 교과서와 같은 교육자료 발간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6월, 국가보훈처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전쟁유업재단과 미국 사회・역사교사 연합체인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가 공동으로 제작한 '한국전쟁과 그 유산(The Korean War and It's Legacy)이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재는 미국의 일선 교사들에게 정확한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한국전쟁 역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으며, 미국의 초・중・고 교사 1만 5천여명에게 배포되었다.

4) 유엔참전용사 참전 현충 시설 건립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는 2017년 미 워싱턴 장진호전투 참전비 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유엔참전국 현지의 참전 현충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1) 美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지원 (~2022년)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인근에 둘레 50m, 높이 1m 크기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미군 및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전사자 4만 3769명(미군 3만 6595명,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을 각인하는 추모시설인 美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초기 미국 현지에서 미국 참전용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금을 모아 건립하려 하였으나, 모금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건립되는 추모시설이다.

'추모의 벽' 건립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미국 영토 내 첫 외국인 전사자(카투사)의 명단이 각인되는 첫 사례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대표 추모시설로 오는 2022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2)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지원 (2019.5월 제막식 거행)

호주 멜버른 Quarry Park에 길이 18.5m, 폭 3.5m 크기로 건립되었으며 한국과 호주의 친선 및 미래 세대를 잇는 다리 모양으로 형상화한 추모시설로 6.25전쟁 당시 호주군이 맹활약한 가평전투를 기리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서 기증한 기념석을 활용하여 건립하였다.

5) 참전국 정부 간 협력강화 사업

2019년 9월에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보훈부가 보훈 정책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2020년 2월에 열린 '2020년 한-뉴질랜드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는 이 협력의향서의 후속조치로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6.25전쟁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6.25전쟁 유엔참전국 대표회의'는 22개 참전국의 장·차관, 대사들이 참석함으로써 보훈 국제협력의 시작을 알렸고 향후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6) 기타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보훈외교>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유엔참전국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열린의사회 민간의료봉사단체에 의약품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엔참전국가에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보훈나눔의료'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고(故) 에드워드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의 손자 네드 포니 (Ned Forney)의 아내에 대한 의료지원을 1호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였다.[3)]

3) https://www.news1.kr/articles/?4353304

4. 왜 <보훈외교>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인가?

1) 6.25전쟁, UN창설 후 유일하게 22개국 연합군 형태로 참전한 사례

6.25전쟁은 UN이 창설된 후 22개 유엔회원국이 연합군 형태로 참전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로, 대한민국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외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나라이다.

유엔군은 6.25전쟁(1950.6.25.~1953.7.27.)에서 22개국 1,957,733명이 참전하였고 전사, 부상, 실종, 포로 등 151,129명이 피해를 입었다.

2) 전 세계 유일의 UN묘지, <부산UN기념공원> 국제 추모 인프라 보유

(1) 11개국 2,317명이 안장된 대한민국 평화의 완충지 <부산UN기념공원>

대한민국의 부산에 있는 <부산UN기념공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UN에서 설립한 묘지로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부산UN기념공원(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은 6.25전쟁당시 연합군의 임시묘지로서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까지 묘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정전협정이후 부산UN묘지에 안장되었던 대부분의 유엔군 전사자는 본국으로 봉환되었고 현재까지 11개국 1,317여명의 유엔군만이 안장되어 있다. 현재 <부산UN기념공원>은 11개국 참전국 대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UN묘지로서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보훈외교> 추모시설이다.

(2) 매년 11월 11일 11시, 22개 유엔참전국이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 묵념

전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부산UN기념공원은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보훈외교> 추모 시설로써 매년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다양한 국제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매년 11개국 2,300여명의 안장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안장자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참전국 2,3세대와의 끈끈한 교류의 장으로서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4~5차례 진행되고 있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일정의 마지막 코스로 유엔참전용사들이 <부산유엔기념공원>을 직접 방문해 6.25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역사적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선생의 발의로 시작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은 전 세계 22개 참전국이 매년 11월 11일 11시 한국 시간에 맞춰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대한민

<표 2> 6.25전쟁 유엔참전국 및 인적 피해현황

지원 구분	참전국	참 전		피 해				
		연인원	참전형태	계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투 지원 (16)	미 국	1,789,000	육·해·공군	133,996	33,686	92,134	3,737	4,439
	영 국	56,000	육·해군	4,909	1,078	2,674	179	978
	호 주	17,164	육·해·공군	1,584	340	1,216		28
	네덜란드	5,322	육·해군	768	120	645		3
	캐 나 다	26,791	육·해·공군	1,761	516	1,212	1	32
	프 랑 스	3,421	육·해군	1,289	262	1,008	7	12
	뉴질랜드	3,794	육·해군	103	23	79	1	
	필 리 핀	7,420	육군	468	112	299	16	41
	터 키	21,212	육군	2,365	966	1,155		244
	태 국	6,326	육·해·공군	1,273	129	1,139	5	
	남아공화국	826	공군	44	36			8
	그 리 스	4,992	육·공군	738	192	543		3
	벨 기 에	3,498	육군	440	99	336	4	1
	룩셈부르크	100	육군	15	2	13		
	에티오피아	3,518	육군	658	122	536		
	콜롬비아	5,100	육·해군	689	213	448		28
의료 지원 (6)	스 웨 덴	1,124	적십자병원					
	인 도	627	야전병원	26	3	23		
	덴 마 크	630	병원선					
	노르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이탈리아	128	적십자병원					
	독 일	117(의사)	적십자병원					
합계	22개국	1,957,733		151,129	37,902	103,460	3,950	5,817

※ 출처: 박동찬(2014),「통계로 본 6.25전쟁」

국 부산을 항하여 1분간 묵념을 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다. 이 국제추모식을 통해 전 세계 유일의 UN묘지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22개국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보훈외교>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고 있다.

5. 왜 <보훈외교>가 부상하는가?

1) 전 세계 '공공외교' 경쟁에서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소프트파워로서 가치 부상

세계 각국은 자국의 외교활동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지원활동 외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및 ODA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이카(KOICA)를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존 공공외교의 문법과는 다른 혈맹(Blood Network)을 통한 '무형'의 자산으로 22개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외교>는 전 세계 '공공외교' 경쟁에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파워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 22개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한 '무형·유형'의 가치 생산

대한민국은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해 '혈맹'이라는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여 다른 외교관계를 통해 구축할 수 없는 독특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외교>를 통해 22개 참전국과 '무형'의 자산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형'의 가치로도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T-50 고등훈련기, K-9 자주포 등 방위산업에 있어서 세계 10대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해왔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국이 대부분 6.25전쟁의 참전국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국인 터키, 호주, 태국 등은 6.25전쟁에서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국으로 양국간의 <보훈외교>를 통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무형의 자산을 형성해 왔고, 이러한 '무형'의 자산 축적을 통해 '유형'의 자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3) 6.25전쟁 UN참전용사들의 '부산유엔기념공원' <사후(死後)안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완충지대 조성의 안보적 가치 재조명

1975년부터 시작된 <보훈외교>로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2015년 대한민국 안보적 관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유엔기념공원(UNMCK)은 6.25전쟁 당시 UN에서 설치한 연합군의 임시 공동묘지로서 기능을 시작했고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 27일 이후로는 더 이상 묘지(Cemetery)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부산유엔기념공원은 묘지로서의 기능이 아닌 참전기념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유엔참전용사의 재방한 사업을 시작한 1975년 이후로 유엔참전용사들이 마지막 참배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부산유엔기념공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참전용사의 미망인, 형제 등이 합동 안장된 사례(11기)는 있었으나 유엔참전용사가 전쟁 중 전사하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사후(死後) 안장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보훈외교>활동의 일환으로 1975년 시작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많은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며 자신들의 참전에 대한 의미와 정당성을 찾고 다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사후(死後)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사례가 많아졌다.

유엔기념공원관리위원회는 정전협정 이후 사후안장을 승인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보훈외교>를 통한 유엔참전용사들의 사후안장 요구 및 유언이 많아지면서 결국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씨를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 첫 유엔참전용사로 승인하였다.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씨의 첫 사후 안장 이후 2021년 현재까지 13명의 유엔참전용사가 사후 안장되었고 지속적인 유엔참전용사의 유언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유엔참전용사의 사후(死後) 안장은 <보훈외교>의 큰 성과이자 대한민국 안보적 관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국내에 대사관을 운영하는 참전국 입장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자국민을 포함해 해당국에 안장된 자국민 또한 관리의 대상으로 해당국 참전용사가 안장된 대한민국 부산유엔기념공원은 중요하게 관리해야할 의미 있는 장소이다.

현재 부산유엔기념공원은 11개국 2,317명의 유엔참전용사가 안장되어 있고 11개국 안장자 참전국 대사들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의 유언을 남기신 참전용사들을 인천공항 입국부터 최고의 예우로 봉영하고 안장할 수 있도록 '유엔참전용사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그 대상과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6. 향후 <보훈외교>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

1)『유엔참전용사 지원 법률제정』을 통한 탄탄한 기반 구축

1975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시작된 <보훈외교>사업은 지원 사업 위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상시 관행에 따라 행사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24일『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유엔참전용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 <보훈외교>사업을 주관하는 관련부서 또한 기존 한시조직에서 상시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법률적, 물적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내에 구축된 탄탄한 기반위에 향후 주요 유엔참전국에 <보훈주재관>을 설치하여 현지 유엔참전용사 지원 및 해당국 보훈부서와의 효과적인 운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2) 정부의 <보훈외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지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보훈외교>사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보훈외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념일 지정(제5조):**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

(2)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6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3) **실태조사(제8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시행을 위한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

(4)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제9조):**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 발굴 및 공훈 선양, 참전용사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시 예우 및 지원, 그 외 유엔 참전용사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제10조):** 유엔참전용사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 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개최.

(6)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제11,12조):** 유엔참전국 또는 국내 및 참전국 민간단체의 유엔참전시설 건립 또는 사업 지원.

특히, 『유엔참전용사지원법』은 영국군 소속으로 참전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하였으나 후에 독립한 '수리남'을 전투지원국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투 지원국 18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24개국을 유엔참전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22개 유엔참전국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보훈외교>의 대상을 법률로써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아일랜드'와 '수리남' 이외에도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멕시코'도 6.25전쟁 유엔참전국 지위를 요청하고 있다.[4)]

3) 참전 1세대를 넘어 2,3세대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 1세대의 평균 나이가 90대 중반으로 고령화되면서 참전용사 및 참전국과의 혈맹을 2,3세대까지 확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준비・시행하고 있다.

유엔참전국 중 가장 많은 참전용사를 파병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참전용사의 참전 구술을 기록해 아카이브 작업[5)]을 시행하고 이 아카이브된 데이터베이스를 미래세대의 교과서 구축 사업에 활용하여 참전 1세대의 유업을 2,3세대까지 확장하고 있다.

4) 유엔참전국 내부의 참전세대를 계기로 강력한 친한(親韓)네트워크 구축

6.25전쟁 참전 1세대 기반의 <보훈외교>를 2,3세대까지 확장하여 참전국내의 강력한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현재까지 약 350만명의 예비역과 현역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주둔하고 있다.

유엔참전국 중 최초로 미국 내 최대의 친한(親韓) 네크워크 조직인 주한미군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2017년 5월 출범하였다.[6)] 이러한 유엔참전국내에 참전 1세대를 넘어 2,3

4)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05700087

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745041

세대까지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다양한 <보훈외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7. 결론: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로써 <보훈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학술 연구 및 집중 지원책을 통한 성과 극대화 도모 필요

과거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 국민은 **"잊고 싶은 역사"**로서 교육받았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6.25전쟁은 더 이상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역사"**로 재조명 되고 있다.

6.25전쟁을 "기회의 역사"로 재조명하고 그 기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외교로서의 보훈정책인 <보훈외교>이다.

유일한 공공외교 영역인 만큼 아직까지 많은 연구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학계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공공외교 중 그 전략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며 다양한 부처내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이러한 <보훈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전략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무형·유형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일환 (2015). "보훈외교의 국가안보 효과",「민족사상」, 9(4), pp.123-132.

라미경 (2015). "보훈과 외교"「한국보훈논총」, 14(4).

박동찬 (2014).『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외교부 (2017).「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한국정책학회 (2020).『미래를 대비한 국제보훈 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보훈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2018).『국제보훈업무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산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연세대 인간평화와치유연구센터 (박명림) (2021).『대한민국 보훈의 국제화·보편화·미래화 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6)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6088500014

세계일보 (2020). “참전용사마스크지원 ‘K-보훈’, 이제는 공공외교의 한축“ (2020.12.15.) URL: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15514293 (검색일 2022.2.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2020.3.6.) URL: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15 (검색일 2022.2.22)

연합뉴스 (2021). “감격의 눈물 흘린 멕시코 노병들”, 한국전 참전용사회 (2021.4.25.)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05700087 (검색일 2022.2.19)

한국경제 (2019). 한종우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 ‘잊혀진 전쟁’ 안되도록 6.25전쟁 교재 만들었죠 (2019.6.27.) URL: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745041 (검색일 2022.2.20)

연합뉴스 (2017). 300만 규모 ‘주한미군전우회’ 내달 출범, 한미친선 강화 (2017.4.26.)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6088500014 (검색일 2022.2.20.)

뉴스1 (2021). ‘홍남철수 영웅’ 포니대령 손자 ‘보훈 나눔 의료’ 1호 선정 (2021.6.28.) URL: https://www.news1.kr/articles/?4353304 (검색일 2022.2.20)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2권 1호 (2022. 3)

Abstract

The only public diplomacy that korean can do, the rise of veterans diplomacy, and its direction of development

Choi, Jungsik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veterans policy for the United Nations veterans and veterans who participated during the Korean War began to be recognized as a new means of public diplomacy. The international veterans' policy in honor of UN veterans is called veterans' diplomacy, and various veterans' diplomatic activities have been underway, starting with the UN veterans' revisit project since 1975. Veterans diplomacy, Korea's international veterans policy, is a unque policy that is difficult to find worldwide. No country was invaded by the war and implemented a veterans diplomacy policy that directly honors veterans from allies. Veterans diplomacy is emerging in its value and importance as a new means of public diplomacy. This Veterans Diplomacy is the only public diplomacy that korea can do. The reason is that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and last case of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a 22-nation coalition since its foundation, mak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only country with conditions for veterans' diplomacy to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This is also because it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an international memorial infrastructure called the UNMCK, the only UN cemetery. The past Korean War was a history that we wanted to forget, but it is changing into a history of new opportunities through veterans diplomacy. What is transforming the Korean War into a history of opportunities is veterans diplomacy, the only public diplomacy that Korea can d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eterans diplomacy and maximize its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academic researches and strategic policy supports.

Keywords: *Veterans Diplomacy, International Veterans Diplomacy, Korean War*

투고일: 2022. 02. 08.
심사일: 2022. 03. 05.
게재확정일: 2022. 03. 05.